

보도자료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도 희망 일시	2024. 8. 29.(목) 10:30부터 보도
문의	행사진행: 총무과 등
	기획처 홍보팀 880-5054, 9072 snupr2@snu.ac.kr

배포일: 2024.8.29.(목)

서울대, 제78회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제78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2024년 8월 29일(목) 오전 10시30분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976명, 석사 1,135명, 박사 711명 총 2,822명에게 각각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한다. <서울대학교 공식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 유홍림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학문공동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공유하고자 했던 ‘서울대의 가치’가 여러분의 활약을 통해 세계 속에서 실현될 것”이라며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믿고 큰 꿈을 담아 새로운 영역, 새로운 세계로 과감하게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유총장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고, 공동선을 실현하는 일에 갈고닦은 역량을 십분 발휘할 것”을 당부했다. <학위수여식사: 별첨1>
-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K웹툰을 글로벌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도약시킨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2007년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가 축사 연사로 초청되어 ‘각자의 성공의 정의’를 만들 것을 당부하는 등 졸업생들에게 자유의지에 따른 도전적인 삶의 가치와 의미를 제시해줄 것으로 보인다. <축사: 별첨3> 김대표는 2014년 포브스 선정 ‘가장 혁신적인 차세대 리더 12인’에 이

름을 올렸으며, 올해 6월 네이버웹툰의 나스닥 상장을 주도하였다.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는 UN 출판 공식도서를 번역하여 시각장애인용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등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인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동해온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이창주씨가 선정되었다.

□ 주요 식순

- 국민의례, 학사보고, 학위수여식사(총장), 축사(김종섭 총동창회장)
- 졸업생 대표 인사, 축사(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 학위수여, 상장 수여 등

【첨부1】 제78회 후기 학위수여식사(총장)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박사, 석사, 학사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쁨과 고마움, 여러 만남의 추억, 새로운 출발선에 선 긴장감,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걱정이 물려드는 시간, 이 모든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졸업식 즈음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과 다가올 미래가 교차하는 오늘 이 자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이 소중한 시간의 주인공인 졸업생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공부하고 연구하며 지내온 나날에는 많은 어려움과 보람이 겹겹이 쌓였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성취는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를 거치면서 일궈낸 것이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힘들고 불확실한 시기에도 여러분은 지적 탐구 활동을 왕성하게 펼쳤고, 당겨진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열심히 경험을 넓히고 도전해왔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며 축적한 다양한 역량은 미래에 진가를 발휘할 여러분만의 견실한 자산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을 사랑으로 감싸고 응원해주신 가족과 친구들, 여러분을 가르치고 성장시켜 주신 교수님들, 캠퍼스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활동을 뒷받침해주신 직원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그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울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학업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준 국가와 사회, 국민의 기대를 가슴 깊이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서울대학교는 여러분의 모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서울대에서 형성한 자아와 가치관을 사회 속에서 표현하고 실천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학문공동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공유하고자 했던 ‘서울대의 가치’가 이제 여러분의 활약을 통해 세계 속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은 서울대의 전령이자 표상입니다. 이곳에서 진리가 여러분의 빛으로 자라났다면, 이제 그 빛을 세상에 널리 퍼뜨려 주기 바랍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희망의 싹, 행복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그 희망과 행복을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님이 이 자리에 와 주셨습니다. 20여 년 전에 여러분처럼 새로운 출발선에 서셨던 김 대표님은 졸업 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열정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문화가 된 웹툰이 걸음마 단계였을 때부터, 이제는 누구나 아는 웹툰 작가들이 미래가 불투명한 무명 작가였을 때부터,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웹툰의 씨앗을 뿌리며 가꾸어 온 분이 김준구 대표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 대표님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K-웹툰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도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믿고 큰 꿈을 담아 새로운 영역, 새로운 세계로 과감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행복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모두에게 전파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인 졸업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도 서울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자기 사랑, 오만과는 다른 이 자긍심에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대 졸업생이라는 이름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간판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배움과 공헌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자긍심을 대변하는 자격입니다. 이제 그 자격에 걸맞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보다 넓게 그리고 멀리 바라보는 식견을 길러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고, 공동선을 실현하는 일에 갈고닦은 역량을 십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교는 그런 여러분을 늘 응원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든 캠퍼스를 떠나더라도 서울대의 교문은 여러분을 향해 늘 열려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배움에 대한 갈망이 생길 때, 성숙의 의미를 일깨워주신 은사의 지혜와 조언이 필요할 때, 또는 캠퍼스에서의 추억이 그리울 때, 늘 열려 있을 서울대의 교정을 다시 찾기 바랍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학문공동체’ 서울대학교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하면서, 여러분과 국민 모두를 위한 자긍심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길을 곳곳하게 걸어온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과 이제부터 더욱 빛날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을 다시 한 번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크고 작은 보람이 늘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2】 축사(김종섭 총동창회장)

사랑하는 후배님, 자랑스러운 서울대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입회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44만 동문 선배들을 대신해 여러분의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홍림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자녀를 우리 서울대학교에 맡겨주시고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난 4년간 학문을 닦고, 다양한 도전을 거듭하며 영광스러운 졸업을 맞이했습니다. 전국의 수재들이 모인 이곳 서울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은 때론 경쟁하고 때론 협력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밤늦도록 불빛이 꺼지지 않는 곳은 도서관은 물론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또 작업실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저마다의 재능을 갈고 닦았습니다. 오늘의 영광 뒤에 많은 땀과 눈물과 열정이 배어있을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듯이 ‘정말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안팎으로 극심한 변화와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코로나 후폭풍으로 경제는 더욱 위태로워졌으며 기후위기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습니다. 새롭고 어려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이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이어 살아갈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대인은 문제가 어려울수록 푸는 과정은 더 재밌고, 풀어냈을 때의 보람은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교에서 익힌 지식과 학습의 경험은 어떤 혼돈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든든한 나침반이 돼 줄 것입니다.

저는 지식에 더해 태도와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울대에는 우리 사회의 기대와 지원이 집중됩니다. 저는 대학 시절 4년간 최고의 교육과 함께 뛰어난 선배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서울대 후광으로 사회에서 더 인정받고 더 신뢰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제게 큰 복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우리 사회에 복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도 혼자만의 실력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와 함께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의 창립자이자 현 메타의 회장인 마크 저커버그는 스물몇 살 때 이미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저커버그는 2015년 12월 딸이 태어난 직후 페이스북 지분 99%를 사회에 기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서울대인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돈을 많이 벌어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할 수 있는 거창한 무엇도 좋지만, 지금 당장 내 주위 사람과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베푸는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부단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44만 동문 선배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3】 축사(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존경하는 총장님, 많은 교수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졸업생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웹툰의 대표인 김준구입니다.

모교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한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지만, 저는 처음 졸업식 축사 제안을 받았을 때, 솔직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학과에서 꼴찌로 졸업을 했는데, 축사의 자격이 있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적순을 알 수 없는 대학에서 왜 꼴찌라고 생각했느냐 질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 졸업 학점이 2.0001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꼴찌로 졸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을 닫고 졸업했던 제가 축사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사회라는 새로운 곳에 발을 딛는 여러분들께 용기를 드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지의 영역이자 고난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 사회가,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배로서, 끈대의 조언을 하기보다는, 제 실수와 성공의 과정에서 경험한, 후배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부분을 몇 가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각자의 성공의 정의를 만들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은 성공에서 비롯합니다. 다만, 저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사회가 정의하는 성공이 아닌, 여러분 각

자가 정의하는 성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대학 생활에서 알 수 있으시듯, 내성적인 오타쿠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석에서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들을 소비하며 참 행복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만화라는 주제의 사업 영역에서, 좋아하는 동료들과 즐겁게 일하는 것”을 제 행복의 기준이자, 성공의 정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을 달성한 지금보다도, 지난 20여 년 간이 저에게는 더없는 성공의 순간들이었고, 행복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미국 상장에 성공하지 못했더라 할지라도, 제 인생은 행복의 순간들로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모회사인 네이버에서 웹툰이라는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경영진 컨펌도 안 받고 몰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는 너무나도 작았고 초기에는 지원을 잘 받지 못했죠. 웹툰의 첫 번째 공모전은 당시 제 석 달 치 월급을 사비로 써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몰래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회사 내 선배들은 가장 유망한 검색이나 커뮤니티 사업으로 전배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좋아하는 웹툰을 매일 보는 걸 계속할 수 있는 한, 이 일을 계속해나갈 것이다”라고 답했었습니다. 제 성공의 기준과 행복의 기준이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영역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르겠죠. 경제적 자유에 따르는 소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최우선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평선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본인의 성공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성공의 정의를 결정함에 있어 본인의 자유의지를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는 본인의 욕망에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의지와 능동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부산에 갈까, 제주도를 갈까?” 하는 능동적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여행을 좋아해야지”라는 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반문하고 그 결과를 통해 목표를 만들어낸다면, 그 결정에 있어 능동의지보다 중요한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저는 네이버웹툰을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제가 더 재밌고, 많은 작품을 보고 싶었거든요. 웹툰 중 ‘텐마’라는 작품이 있는데, 담당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최신 회차를 볼 수 있다는 것에 엄청난 행복을 느끼며, “난

성공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열정을 가져라” 라는 말만큼 무의미한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은 누군가가 쥐여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조차도 “무엇인가에 열정을 가져야지” 라고 생각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자연스럽게, 어떤 목표에 자연스럽게 열정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감정을, 이러한 행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유 의지에 경청하면서 자신만의 성공의 공식을, 정의를 만들어가는 거죠.

어떤 후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누워서 잠을 푹 자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누워서 과자를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걸 목표로 해도 될까요?” 라고요. 음... 그렇다면 최고의 침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면 어떨까요?

자유의지에 솔직하고, 능동적으로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좋은 결과에서 큰 행복을 갖게 될 것이고, 비록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과정 속에서 성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닌 빈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신의 자유의지에 솔직한 목표를 세우면, 쉽게 말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매일매일이 성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망설이지 말자” 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우선순위에 따른 과감한 베팅인데요.

본인에게 솔직한 성공의 정의,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를 최우선으로 놓고 전력질주함에 있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은 회사의 직급 체계가 바뀌면서, 대리에서 사원으로 강등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표를 낼 사안으로 생각될 것이지만, 오히려 아무렇지 않더군요. 그 당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승진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오는 재미 중 어느 것이 클까, 계속 고민했고 저의 일이 주는 가치에 베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던 경로가 옳았다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선택지로도 행복하게 살아온 선배가 있구나 라는 사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고민이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작가에게 더 많은 수익을 배분하자고 결정했던 사례가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의 악화가 뻔히 예상되었지만, 더 많은 작가들의 참여를 만들어내고 먼 미래에는 더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베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는 모르겠고, 이 방식이 더 많은 작품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더 재밌고 많은 작

품을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노스 스타가 모든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줬습니다.

우리 후배분들이 본인에게 끊임없이 자문하고, 얻은 본인만의 성공의 공식에 몰입하는 과정 속에서 방법론적인 팁을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피드백의 중요성”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끊임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는 친구일 수도, 동료일 수도, 상사일 수도,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피드백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선택지를 다양하게 해주는 가장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는 사회생활에서의 다양한 지침을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인생에서 고난의 순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생활을 할 때, 단짝 친구와 둘이서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단짝 친구는 저에게 ‘전필’은 ‘전공필수’, ‘전선’은 ‘전부선택’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결과 이 단짝 친구와 저는 모든 수업을 전공으로 채우기 일쑤였고, 당연히 퀴즈가 많은 전공 과목 특성상 매주 시험을 보는 나날을 보냈으며, 학점은 낮을 수밖에 없었죠. 학과 동기들은 후에, 성적이 제일 낮은 애 둘이서 전공은 가장 열심히 듣는다고 그 이유를 궁금해했다고 알려줬습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친구가 한 명만 더 있었다라면, 피드백을 해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었다면, 인생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조언자를 항상 많이 갖기를 권합니다. 제가 네이버웹툰을 만들고 성장시키며 했던 모든 일들도, 제 개인의 통찰이었다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항상 청취했기에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개선된 스크롤 포맷도, 웹툰 업계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미리보기라는 비즈니스 모델도 작가와의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한국에서 시작한 웹툰이 일본 내에서 한 번 더 검증되고, 미국을 거쳐 프랑스 등의 유럽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글로벌 전략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다양한 의견 수렴의 결과였습니다.

사회에서의 일이란, 선택의 연속입니다. 완벽한 결정이란 있을 수 없지만, 신중한 결정은 가능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말이죠. 저는 “모두의 의견을 듣고, 소신껏 결정하자”라는 것을 모토로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선택에 고민이 되는 순간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목표가 무엇이었지?”, “내 성공의 정의가 무엇이었지?”, “내 행복의 정의가 무엇이었지?”를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이를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으로 성공한 선배로써 축사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아 살아온 것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만하다 생각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라는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성공의 공식을 찾고, 이를 위해 살아가면서 그 과정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